

## 후지산(富士山) · 요코하마(橫濱) 기행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吳 在 賢

요코하마(橫濱)를 떠날 때 그렇게 퍼붓던 폭우가, 도메이(東名)고속도로 고텐바(御殿場) I.C를 지나 후지산 입구에 접어들 때,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끔히 개이기 시작한다. 나는 자만인가 신앙인가 몰라도 행운이 항상 나와 같이하고 있다는 불측의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다.

버스 안에서 요코하마역 명물인 슈마이(짬만두) 도시락으로 점심 겸 안주 삼아 술판이 벌어지고 1년만의 재회의 기쁨으로 웃음이 터지고 있을 때, 이번 동창회를 주관하는 간사 쓰루다(鶴田)군은 격정스러운 표정에 젖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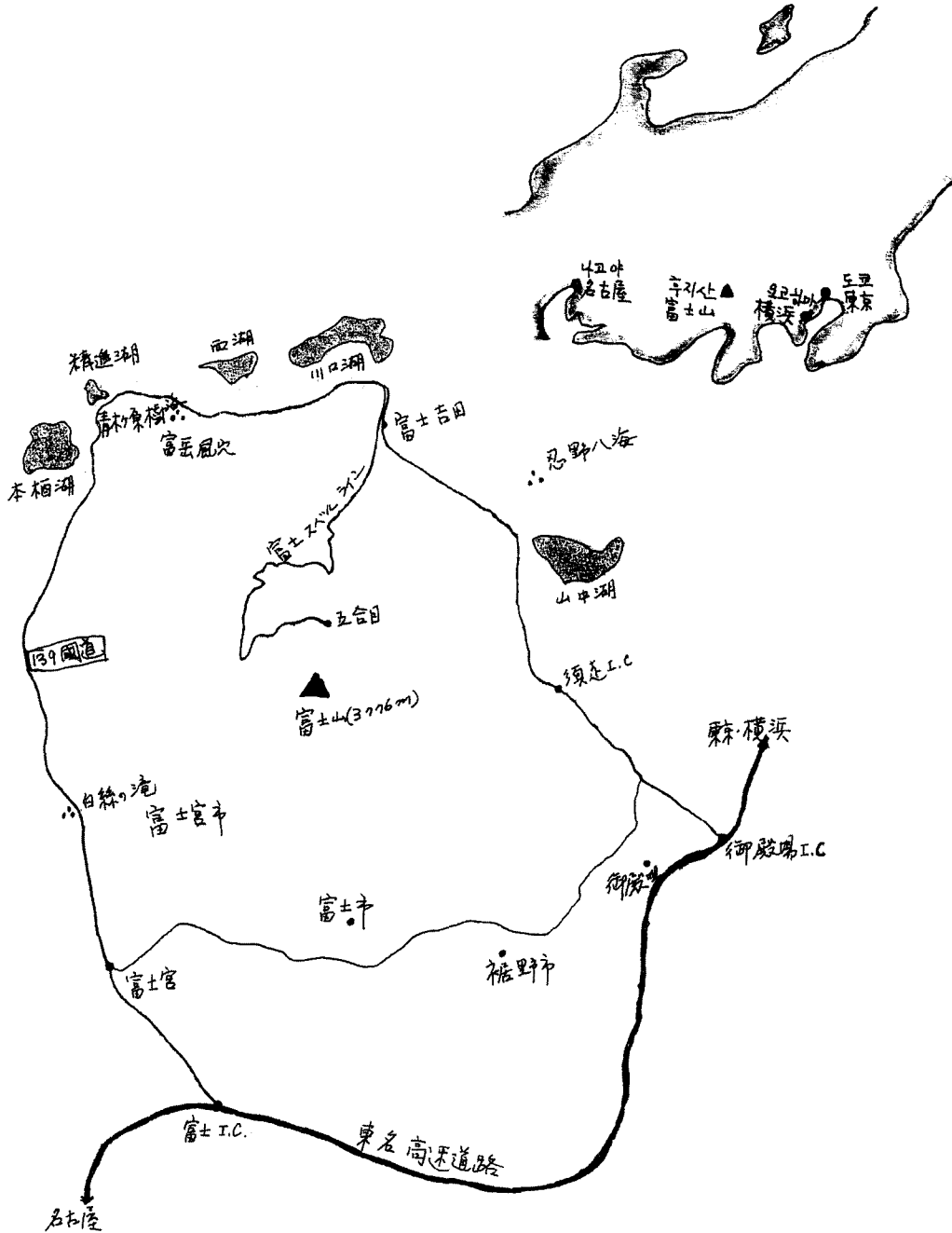
이번 동창회의 테마는 후지산이고, 그 타겟트는 선명한 후지산을 조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쓰루다군인지라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는가. 그러나 나는 낙관하고 있었다. 그 행운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마침내 그 행운 속에 버스는 후지산 동쪽 기슭의 중심이고 후지등산과 후지오호(湖)의 현관인 고텐바와 스바시리(須走)를 지나 비에 젖은 히가시후지(東富士) 유료도로를 달리고 있다. 삼림이 있고, 초원이 있는 해발 800~900m의 고원 숲 사이로 야마나카호(山中湖)가 보였다가 숨고, 숨었다가 또 보인다.

**야마나카호(山中湖) :** 후지오호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면적이 6.67 km<sup>2</sup>로 오호 중 가장 넓고, 또 표고 982 m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호수의 주위는 약 13.5 km, 이 호반을 따라 문학관, 미술관, 꽃 공원 그리고 별장 등이 점재하고 있다. 이 야마나카호를 지나면 멀리 오시노핫카이(忍野八海)에 접한다. 오시노 마을 일대는 그 옛날 야마나카호와 연계된 거대한 우쓰(宇津)호의 호저라고 한다. 그 후 이 호저가 융기하여 현재의 분지가 되었으나 그때 남은 여덟 개의 용수(湧水)가 못을 만들어 지금의 핫카이(八海)가 되었고, 일본 전국 명수백선에 뽑히고 있다. 야마나카호부터 흘러내린 가쓰라(桂)강에, 용수지(池) 오시노핫카이부터의 청수가 합류하여 수향(水郷)을 만들고 있다. 이 자연과 조화한 소박한 환경이 후지산을 배경으로 유현한 세계가 펼쳐진다.

**가와구치호(川口湖) :** 야마나카호와 오시노마을을 버스 차창에서 훑치다시피 멀어서 바라만 보고 오늘의 숙박지 가와구치호에 도착했다. 먼저 가와구치호반 야기자키(八木崎)공원에 자리 잡은 「가와구치호 뮤스관·아다에유키관(興勇輝館)」을 찾았다. 인형작가 아다에유키의 70여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다. 일상의 생활모습이라든가 어린이들을 테마로 한 것이 많고, 그의 독특한 작품부터 「형질의 조각」이라고도 한다. 마침 “별 하늘 아래에서” 제목으로 특별기획전시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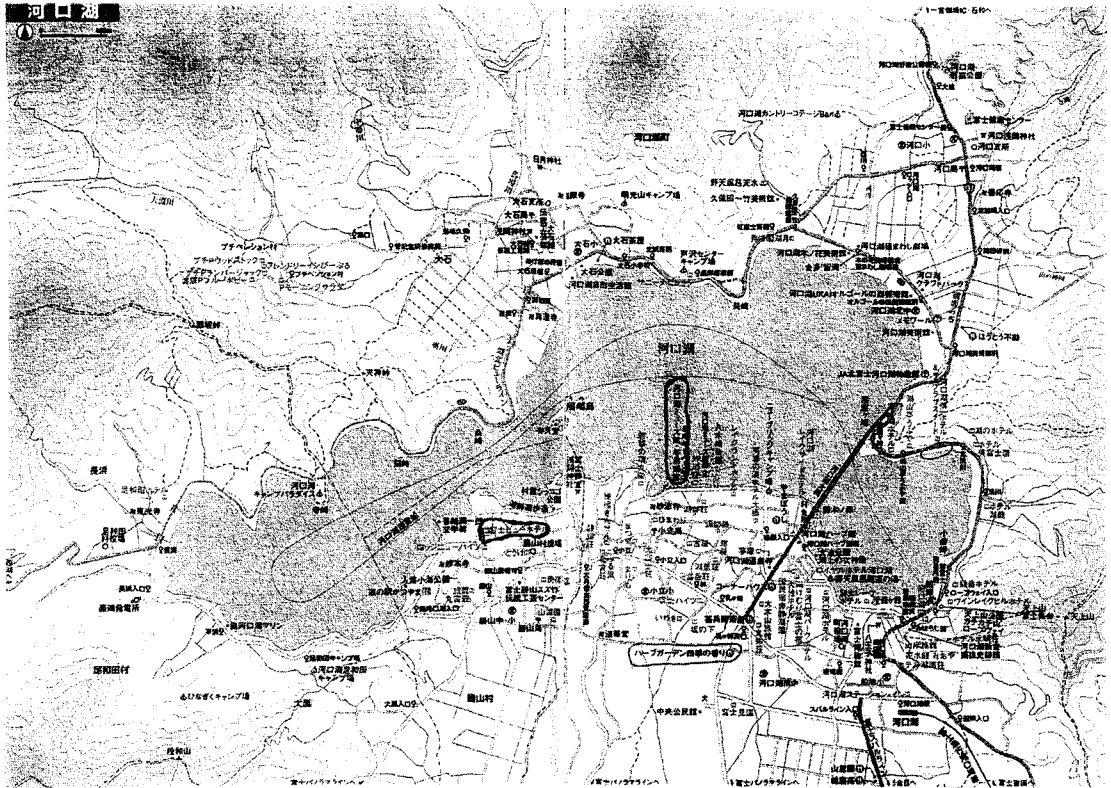
닝그루(Ninguru)라는 북해도 산속 숲에 살고 있다고 하는 신장 15cm의 조그만 소년 “쭈쭈”가, 처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본 광경은 별 하늘 아래 비치고 있는 거리의 등불이었다. 이렇게 제작한 “닝그루 스토리”를 중심으로 형질 조각으로 만든 최신식의 의복작품은 너무도 순수하고 슬픈 표정과 어우러져, 동심의 독특한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형질조각으로 이렇게 훌륭한 예술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의심이 간다. 그 정도로 아다에유키씨는 유명한 형질조각의 작가라고 한다. 작품을 팔지도 않는다.

여름이면 라벤더의 옅은 자색의 꽃밭으로 장식한다는 기자키공원 호반에서 우리들은 땀치에 앉아 가와구치호를 응시하고 있다. 후지오호의 중앙에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낮은 호수라고 하지만 해발 830 m라는 고원의 호수이다. 면적 6.1 km<sup>2</sup>로 야마나카호보다는 약간 작지만 호안선의 변화가 많아 주위가 19.9 km로 가장 길다. 특히 북쪽 호안은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고, 후지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가 많다. 1997년 동쪽호안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일약 야마나시(山梨)현 하의 굴지의 온천마을로 탈바꿈하였다.



富士山 주변지도

높은 산, 고원 그리고 호수(혹은 용수), 이 삼자의 관계는 불가분인가 보다. 높은 산 아래에는 광대한 고원이 있고, 고원의 끝자락에는 용수(湧水)가 있어 이 용수가 호수를 이루기도 한다. 야마나카호, 가와구치호, 세이호(西湖), 쇼진호(精進湖) 그리고 모토스호(本栖湖), 이 후지호는 후지산의 눈이 녹아 복류수(伏流水)가 되어 호수를 만들었다.



河口湖



아다에유키(與勇輝)씨의 힘겨운작품 “별 하늘 아래에서”



아다에유키(與勇輝)씨의 힘겨운작품 “별 하늘 아래에서”

북해도 니세코 근처의 요페이산(羊蹄山, 표고 1,893 m) 기슭의 후키타시(吹きたし, 분출한다는 의미)를 가보았을 때 나는 아연실색하였다. 산자락에서 하루에 8만톤이라는 약수 같은 맑은 물이 분출하여 조그만 강을 이루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후키타시가 산 주위에 17개나 있고, 그곳에서 하루 50만톤의 용수가 분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해도 대학의 쓰네카와(恒川) 교수 말에 의하면 100년 전의 강설이 분출하고 있다.

후지산 서쪽 기슭 후지노미야시 근처의 시로이도노 폭포(白絲の瀧)도, 용암단층부터 후지산의 눈이 녹아 오랜 세월 끝에 용출하여 폭포가 된 것이다. 높이 20 m의 U자형의 언덕전면부터 쏟아지는 수량은 매초 1.5톤이나 된다. 후지오호와 더불어 엄청난 물이 후지산 둘레로부터 흐르고 있다. 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있는가.

중국 신강성 고비사막의 오아시스에 인구 100만의 도시, 우루무치가 있다. 여기에 공급되는 물도 해발 5,000m급의 천산산맥의 눈이 녹아 먼 지하자연수를 거쳐 도달한 것이다. 눈 녹은 물로 때로는 홍수도 발생한다. 2002년 여름 우루무치에서 투루판 가는 관광길에 홍수 난 사막 하천 바닥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호반의 벤치에 앉아 고원의 호수, 가와구치호에 마음을 던지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나카야우키치로(中谷宇吉郎)바사가 뇌리를 스쳐간다.

눈이 많은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의 교수였던 그는 눈의 결정을 인공적으로 처음 만들어 낸 세계적인 눈의 과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광설량과 수량”을 추정케 하여 수력발전에 응용하였다. 강설과 수량, 눈이 온다는 막연한 이미지가 계량화되고 있다. 후지산 둘레에서 용출하는 수량을 전부 합친다면 얼마나 될까. 장난기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반의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이제 “후지뷰호텔”로 가는 차례다.

**후지뷰 호텔에서 :** 후지뷰 호텔은 1936년 현영(縣營) 호텔로서 발족한 역사와 격식을 느끼게 하는 리조트호텔이다. 여관 동네로부터 떨어진 남쪽 호안의 한적한 곳에 이 호텔만이 서있다. 호텔 전면에는 웅대한 후지산이 압도하고, 호텔 후면에는 가와구치호의 잔잔한 물결이 호텔의 뒷마당 호안(湖岸)을 적시고 있다.

3만평의 넓은 정원에는 수령 100년이 넘는 벚꽃나무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오늘이 10월 21일, 단풍이 막 물들고 있다. 영봉 후지의 품안에 안겨, 한없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들은 즐거운 저녁 만찬을 앞두고 먼저 온천부터 들어갔다. 실내 대욕탕과 노천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둠이 짙은 객실 창 너머로 팽이를 거꾸로 세운 모습과 닮은 후지산의 윤곽이 뚜렷이 보인다.



후지뷰 호텔과 河口湖



후지 뷰 호텔과 후지산

아침 일찍 일어나 호반의 오솔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촉촉한 공기가 흐르고, 적막에 쌓여있다. 호수는 왜 그런지 평화를 느끼게 한다.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큰 파도가 없기 때문인가. 호수에 접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호수가의 오솔길! 얼마나 멋있는 풍경인가. 나는 평소에 호수가의 오솔길과, 산속의 그렇게 험하지 않은 트래킹코스를 걷고 싶었다. 마나스루의 4,000 m급의 트래킹코스를 그려보기도 하였지만, 언제인가 TV에서 방영한 뉴질랜드 남쪽 섬의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밀포드나 루트번 트래킹코스가 더욱 매력적이었다. 지금 나는 삶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앞으로의 조그만 설계가 뒤범벅이 되어 호수가의 오솔길을 걷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곳을 다시 방문 하여, 하루고, 이틀이고 이 오솔길을 걸어서 사적과 문화시설을 둘러보고 싶다.

가와구치호의 물을, 증수방지와 후지요시다시에의 관개용으로, 에도시대에 약 170년간 손으로 뚫다는 터널도 보고 싶다. 에도시대의 이 지방의 민구와 농기구 그리고 민속성과화재료가 진열되어 있는 후지박물관도 보고 싶다. 후지산을 주 테마로 회화 및 사진작품을 수장한 가와구치호미술관 그리고 오르골미술관, 전통공예관, 원숭이공원 등 볼거리가 호숫가에 수 없이 이어지고 있다. 욕심이겠지만 손주놈들을 데리고 와 호텔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전거를 같이 타고 이 호수가 오솔길을 한 바퀴 돌고 싶다. 일금 1,000엔으로 종일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정원내의 샷트 골프코스에서 노닥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호텔 “레스토랑벨뷰”에서 숲 사이로 호수를 조망하면서 조식을 끝으로 우리는 후지산을 향하여 호텔을 떠났다. 겨우 15시간의 체류이다. 시간과 돈에 아무 부담 없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이 호텔에 체류할 수 있는 팔자가 되어야 하는데.

**후지산** : 우리들은 먼저 가와구치호대교를 지나 서쪽 호숫가에서 후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후나쓰하마(船津浜) 너머로 후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영봉으로 지칭되는 후지의 정상은 일년 내내 눈에 쌓여있다. 오합목(五合目)<sup>1)</sup>으로 짐작되는 오름이 아득히 보인다. 서쪽으로 완만한 능선이 끝없이 뻗어 있다. 여인 저고리 소매처럼 부드럽고, 엄마와 누나의 포근한 정을 느끼게 한다. 마치 서귀포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능선과 닮았다. 능선의 조그만 돌기부는 아마 기생화산의 오름이겠지. 가와구치호의 잔잔한 호면과 후지의 위용, 그리고 물들고 있는 만추의 단풍,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여행은 대성공이다. 쓰루다군은, 내심 혼자 회심의 환성을 올리겠지.



후지뷰 호텔 정원에서 후지산을 보다

<sup>1)</sup>산의 중간높이를 오합목. 8할 높이를 8합목이라고 한다.



河口湖에서 바라보는 후지산



“허브가든 사계의 향기” 레스토랑 홀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다.

버스는 다시 가와구치호 대교를 넘어 “후지스바루라인”으로 진입했다. 가와구치호부터 후지산 오합목(해발 2,305 m) 까지 가는 전장 30 km의 산악관광도로이다. 연도에는 자동차박물관, 가와구치호 휠드센터<sup>2)</sup>, 야마나시현 환경과학연구소, 후지스바루랜드 도그파크 등 볼거리가 많다. 도그파크(dog park)는 광대한 적송 숲 속에 위치하여 원내에는 약 70종 250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다. 쇼를 볼 수 있는 이벤트, 자기 애견을 놀게 하는 도그런광장, 개의 호텔, 미용실 등등, 이 중에서 새끼강아지, 어른 개와 같이 놀 수 있고, 장난할 수 있는 광장이 가장 구미가 당긴다.

<sup>2)</sup>후지의 원시숲 속을 정비한 자연탐승 에리어(Area)의 총칭. 점재하는 용암수형군(溶岩樹型群)등을 관찰하는 산책로 등이 있다.

표고차 1,535 m, 30 km 라인의 종점까지 아슬아슬한 55분의 산악드라이브 끝에 드디어 오합목에 도착했다. 후지산 정상이 손에 잡힐 듯이 보이고, 멀리 구름 너머로 남 알프스 연봉이 아득히 보인다. 실로 전망이 뛰어난 곳이다. 넓은 주차장, 선물가게, 레스토랑에 관광객이 붐비고 있다. 이 근처가 그 옛날 후지산의 전신의 산 쇼미다케(小御岳)의 산정이었다고 한다.

나는 50년 전 대학생시절 고향 친구 4명과 요시다구치(吉田口)에서 후지산을 등산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때는 8월초였다. 7시간을 걸어서 밤 12시에 팔합목(八合目) 산장에 도착했다. 아래를 보니 회중전등을 비추고 올라오는 등산행렬의 불빛이 마치 구렁이와 같이 꾸불꾸불 움직이고 있었다. 산장에서 자는 등 마는 등 하고 이른 아침에 태양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쪽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이다. 고덴바(御殿場), 후지노미야(富士宮) 등의 산록고원이 평화스럽게 전개되고, 쓰루가만(駿河灣)의 호수같이 잔잔한 아침바다 저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햇살이 비치고 용광로 씻물처럼 이글이글한 태양이 막 솟고 있었다.



후지산 五合目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산악유료도로

그런데 웬 말인가 갑자기 번개가 치고 검은 구름이 산허리를 덮더니 장대같은 비가 퍼붓기 시작한다. 순식간의 일이다. 산행을 계속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내의까지 흠뻑 다 젖고 추워서 몸이 떨린다. 게다가 주위는 만년설이 군데군데 쌓여있다. 산 정상을 지척에 두고 하산해야 하는 쓰린 경험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 동창 일행은 등산 아닌 등산을 마치고 가와구치호로 다시 돌아왔다. “허브가든 사계의 향기”라는 이름도 기다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이다. 온실이 있는 넓은 부지 내에서



五合目에서 남 알프스 연봉을 조망하다.



五合目에서 망원렌즈에 잡힌 후지정상



五合目과 후지산

자가 재배한 허브 약 100종을 사용하는 허브요리의 레스토랑이다. 후지산이 잘 보이는 2층, 창가에는 야마니시(山梨) 명산의 포도주병이 뿔뿔이 진열되어 있는 홀에서 바스터런치를 먹었다. 신선한 샐러드, 처음 먹어 보는 참깨 드레싱, 와인 그리고 허브가 들어있는 따끈따끈한 바스터, 호화스러운 메뉴는 아니지만 이집 특유의 맛과 정성이 담겨있다.

가와구치호에는 개성이 다른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전통을 키워 온 여러 가지 종류의 레스토랑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하나같이 후지산이 보이는 홀을 갖고 있다. 후지를 향해서 서있고, 후지를 위해서 꾸미고, 후지 덕택으로 영업을 하면서 항상 후지를 바라본다. 후지는 생활전체이다.





모도스호(本栖湖)에서



5,000엔권에 실린 모도스호에서 바라보는 후지산

**후가쿠후케쓰(富岳風穴)** : 버스는 사이호(西湖)에 정차하였다. 주위 9.9km, 면적 2.1km<sup>2</sup> 후지오호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호수이지만 수심은 깊어 90m나 된다.

호수 주위에는 사람의 손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이 남아있다. 아오기가하라(青木ヶ原)의 수해(樹海)와 그 속에 산재하는 용암동굴들이다. 아오기가하라 수해는 864년 후지산의 기생화산(寄生火山)의 하나인 나가오산(長尾山)의 대분화 폭발 시 흘러내린 용암지대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을 거쳐 약 30km<sup>2</sup>에 달한 이 용암벌판이 원시림으로 바뀌었다.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 상록수로 된 숲이 마치 나무의 바다같이 보이기 때문에 수해라는 이름이 부쳐졌다.

우리는 이 아오기가하라 수해 사이를 걸어 후가쿠후케쓰(富岳風穴)를 구경하였다. 총 연장 201m의 용암동굴(lava cave)의 하나로 내부에는 단단하고 세밀한 용암층상으로 되어 있고, 자기(磁氣)를 가진 용암도 볼 수 있다. 굴 속 온도는 항상 3°C를 유지하고 있다. 이 용암동굴의 성인을 지질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폭발해서 유출



富岳風穴로 가는 길

하는 용암 가운데는 가스체를 포함하고 있고, 외부가 냉각하여 수축 시 내부는 아직 고온의 유동체이기 때문에 외피(外皮)의 약한 부분을 압력에 의하여 가스를 포함한 고온 유동체가 뚫고 나간 자리가 이 용암동굴이다.

버스는, 후지오호 마지막 호수인 쇼진호(精進湖)와 모도스호(本栖湖)를 둘러 후지산이 잘 보이는 위치에서 후지산을 전망케 해주었다.

日本の 5,000엔 지폐의 디자인에 채용되고 있는 모도스호에서 전망하는 후지산은 천하일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 정상에 구름이 약간 끼어있어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동참들과 제주도 한라산 영실에서(2000. 10. 20.)

버스는 모도스호를 최종 기착지로 139호 국도를 달려 선명한 후지산을 조망한 행운을 안고 이듬이 찾아드는 요코하마를 향하고 있다. 후지노미야(富士宮), 후지 I.C.를 거쳐 도메이(東名) 고속도로 진입한 후에도 후지산은 원추형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해도선 기차 차창에서 보아도, 서울 가는 비행기 위에서 보아도, 동심원을 그려, 어느 방향에서나, 어느 각도에서나 항상 같은 자태로 당당한 위용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야말로 유아독존(唯我獨尊)격이다.

후지산을 중심으로 한바퀴 돌고, 다시 요코하마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제주도 한라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산 높이가 후지산의 약 반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규모는 작지만 후지산과 그렇게도 많이 닮았다. 같이 화산폭발로 생긴 산이기 때문에 원추형의 모습을 하여 우뚝 솟아 있다.

한라산도 정상부분만 빼고는, 신기할 정도로 고원과 평탄한 육지로 되어 있다. 높이 1,950m의 산기슭이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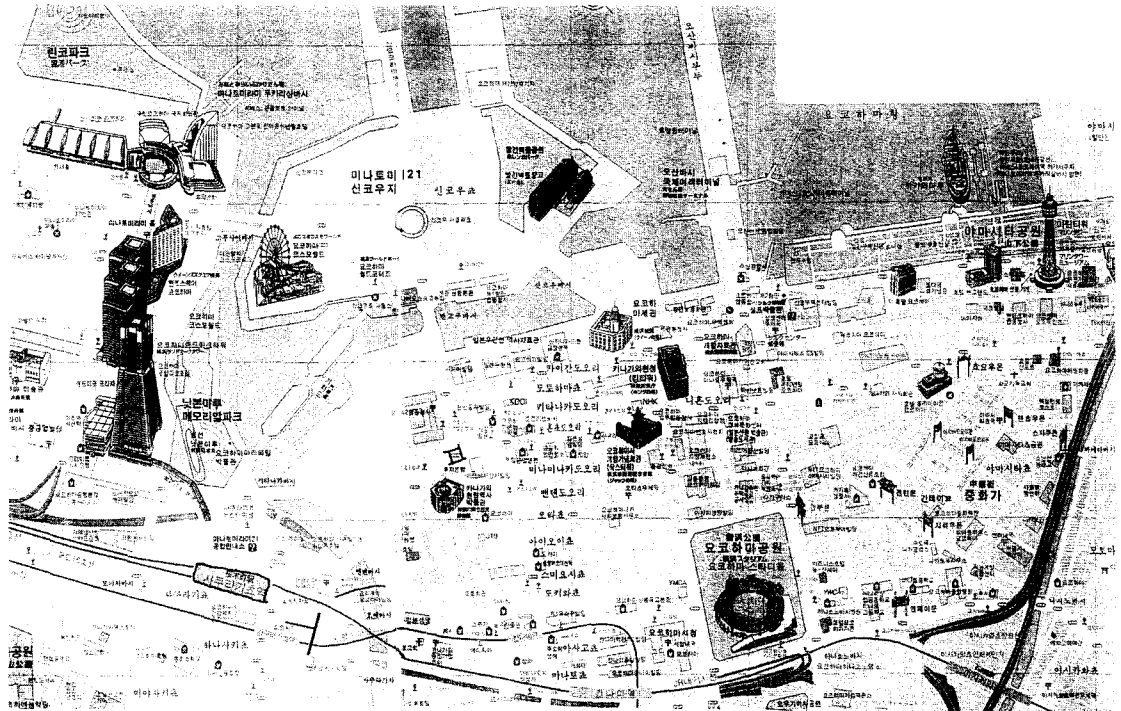
전체를 커버하고 1,840 km<sup>2</sup>의 광대한 육지를 만들고 있다.

2000년 가을 제주도에서 동창회를 가졌을 때 그 아름다움에 놀라고 모두를 만족했었다. 하와이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섬이 日本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오이다(大分) 출신의 쇼노(生野)군은, 끝없이 펼쳐지는 고원이 섬답지 않고 육지와 같이 광대함을 느끼게 한다고 좋아했다.

후지산도 한라산도 일대 용암에 쌓여 있고, 용암 아래로 다량의 복류수(伏流水)가 흐르고 있다. 후지산에서는 이 복류수가 후지5호를 만들었지만, 제주도에서는 해안 가까운 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천제연폭포와 천지연폭포이다. 만장 동굴도 후지산의 후가쿠후케쓰와 같이 용암동굴이다.

후지산과 한라산, 유달리 다른 점이 하나있다. 한라산의 목초지에는 지금도 몽고말이 방목되어 있다. 13세기 고려는 90년간 원(元)나라에 지배당한 후에도 제주도는 몽골병이 계속 주둔하여, 토착하였다. 한라산 초원이 몽골의 초원과 닮아 떠나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자손은 융합되어 볼 수 없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몸집이 작은 데다가 두상은 크고, 다리는 짧지만 통통한, 어딘가 못난이 같은 몽골말뿐이다. 이 몽고말은, 장도의 행군과, 내구력에 강하다고 한다. 대몽골제국의 말이 숫자는 적고 보호받고 있지만, 제주도 대초원에만 남아있다.

**요코하마(横浜) :** 도메이고속도로 요코하마 I.C.에서 호도가야 바이패스로 빠져 사쿠라키초(櫻木町)역 옆의 요코하마랜드마크타워로 왔다. 日本 제일의 높이를 자랑하는 요코하마랜드마크타워의 초고층부, 49층~70층에 자리 잡은 “요코하마 로열파크 호텔”에 짐만 던져두고, 차이나타운 헤이친로우(聘珍樓)로 직행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광둥(廣東)요리로 유명한 중국집이다. 7층까지 여러 가지 크기의 객실이 있고, 메뉴는 5,000에서 50,000엔 코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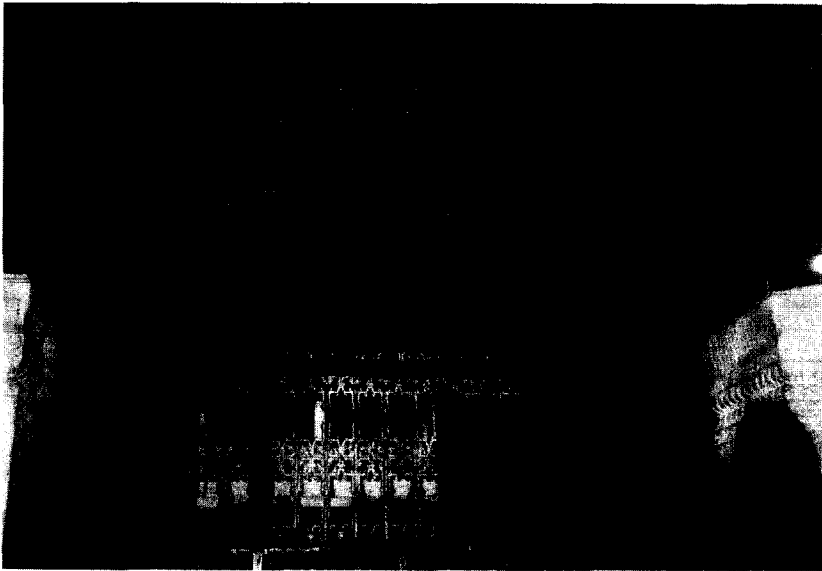
요코하마만과 요코하마 중심가

요코하마에는 이번 동창회 간사로 수고하고 있는 쓰루다군을 위시하여 사토(佐藤)군, 우찌노(内野)군 그리고 미끼(三木)부인이 살고 있다. 자기고장의 명물인 차이나타운에서 만찬을 하고 日本서 제일 높은 호텔에서 하룻밤 잠을 자도록 동창회일정을 배려한 것이다.

만찬을 즐긴 우리들은 차이나타운 여기저기를, 중국냄새가 물씬 나는 거리를, 짝을 지어 걸었다. 요코하마만에 근접하고 요코하마 중심지인 야마시타초(山下町)에 자리 잡고 있다. 차이나타운(중화가)에는 이 타운을 장식하는 9개의 문이 있다. 그 중에서 선린문(善隣門)은 주황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어 한층 돋보인다. 관제묘(關帝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밤거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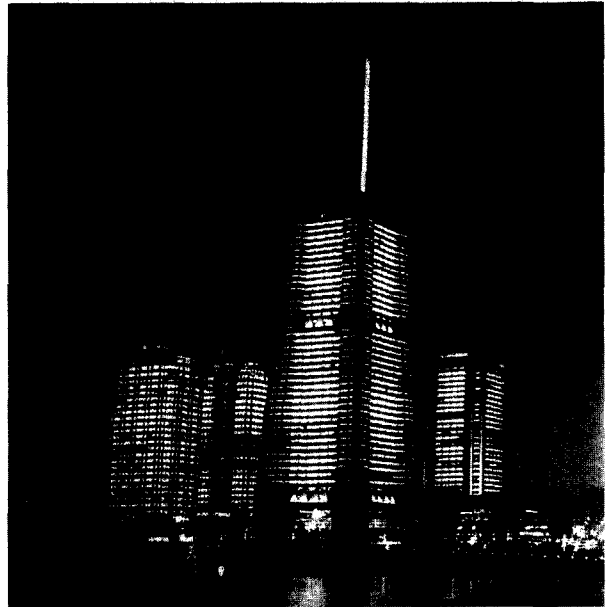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 있는 關帝廟

廟)는, 삼국지의 영웅 관비를 「장사의 신」으로 모시는, 극채색의 장려한 건물로, 이 차이나타운의 심벌로 되어있다. 우리가 참관할 때는 밤 10시가 넘었지만, 밤의 불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호텔에 체크인하여, 68층의 북동쪽의 객실에서 바라보는 밤의 전망은 환상적이었다. 멀리 도쿄의 불빛부터 요코하마만을 왕래하는 크고 적은 배들의 불빛 마치 별개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요코하마의 자랑이고 초 인기인 요코하마베이 브릿지(bay bridge), 860m의 사장교로, 백조와 닮은 단정한 자태는 밤의 라이트업으로, 객실 창 너머로 황홀할 만큼 아름답게 보인다.

차세대 미래도시를 향해서, 24시간 활동하는 국제문화도시, 21세기의 정보도시 물과 그린(green)과 역사로 둘러싸인 환경도시를 행해서, 미나도(항구) 미래 21(MM21)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요코하마랜드마크타워이고, 높이 296 m, 지상 70층의 일본 제일의 초고층빌딩이다. 일본 제일 높은 전망대「스카이가든」, 오피스와 호텔, 쇼핑몰, 커뮤니티스페이스 등 다채로운 시설이 복합되어있다. 나는 지금 이 초고층 호텔 68층이라는 중공(中空)에서, 요코하마 역사의 단편을 알기위해 요코하마의 지도와 안내책자를 뒤적거리고 있다.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의 야경

요코하마의 개항은 1859년이다. 그것도 미국과 에도막부 간에 체결된 미·일 수호통상조약(1858년)에 의해서이다. 그때까지는 갯벌과 모래사장위에 몇 채 안되는 어촌에 불과하였다.

「쑤쑤(長州: 지금의山口縣)의 양이(攘夷家)들은, 막부의 개국을 증오하고, 요코하마의 개항을 비(非)로하여, 1862년 12월 두목인 다카스기신사쿠(高杉晋作)의 주도하에, 도쿄 시나가와(品川)에 건축 중인 영국공사관의 공사장에 쳐들어가 불 지르고 도주하였다. 그 패거리 중에는 이등박문(伊藤博文)도 있었다.」

어디선가 위와 같은 역사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난다. 하여튼 이러한 시절이었다.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빌딩 앞 멀지 않아 오오카가와(大岡川)의 하류가 있고 그 하류에 인접해서 제3관구 해상보안부가 있다. 그 부지 안에 「등대국 발상의 지」라는 표식이 있다.

이 장소에 일본 최초의 양식등대건설을 구 막부가 기안하여 영국공사 “파크스”에게 일임하였다. 그 사이에 막부는 와해되고, 그 사무는 명치신정부로 인계되었다. 1868년 6월, 영국에서부터 요코하마로 상륙한 기술단은 공사를 서둘렀지만 그 당시 일본은 등대와 부속건물을 만들 아무것도 없었다. 벽돌조차 없었다. 그래서 벽돌 굵은 기술부터 가르쳐야 했다.

영국인 에드몬드 모델의 지도 하에 건설되어 1872년 요코하마와 신바시(新橋·東京) 사이에 일본서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철도 공사 시 일본인 기술자가 “바라스”라는 용어를 해석할 수 없어 “바라스” 1톤을 영국으로 주문하였다. 그랬더니 철도선로용 재갈 1톤이 왔다는 기술 암흑시대의 일화가 있다.

야마시다(山下)공원 앞의 조그만 특설부두에 영구히 움직이지 않게 계류되어 있는 화객선 히카와마루(氷川丸; 11,632톤)의 모습이 뚜렷하다. 우리의 귀에 많이 익은 배이름이다. 1896년(명치 29년), 일본은 미국 시애틀 간에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이 항로에 선군을 조직하게 되었다. 히카와마루는 이 항로의 배로서 1930년 준공하여, 동년 5월 요코하마 출항부터 실로 73회의 항해를 기록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과 더불어 해군에 징용되어 병원선이 되었다. 전쟁 중 남방해상을 돌아다녔지만 그간 무상(無傷)으로, 폐전은 운 좋게 마이스루(舞鶴)독에서 수리 중 맞이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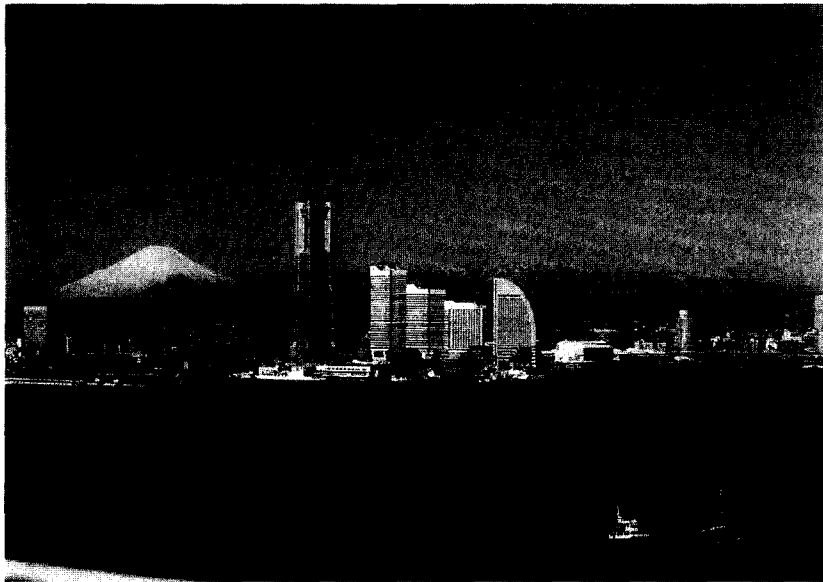
이후, 복원선으로서 태평양에 산재하고 있는 병사 및 군속을 일본으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 그 임무가 끝나자 개조되어 다시 화객선이 되었다. 1953년 왕년의 시애틀 황로에 복귀, 46회의 항해를 끝으로 1960년 선령 30년으로 은퇴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이 배의 불굴의 활동과 배 모양의 수려함을 높이 평가하여 회사측에 부탁하여 요코하마항의 상징으로서 영구계류를 실현시켰다.

“태평양의 여왕” 이라고 불리는 이 히카와마루는 유명한 채플린 등도 승선 숙박한 호화로운 선실을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튿날(10월 23일) 아침 68층 객실에서 혼자서 1층 로비로 내려와 타워빌딩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민정시찰 겸 아침운동을 하였다. 먼저 사쿠라기쵸역으로 갔다. 도쿄의 국철 교통수단은 도쿄도 중심을 끼고 순환하는 야마테 선(山手線)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쥬오선(中央線), 그리고 남북의 게이힌토후쿠선(京濱東北線)이 있다. 후자의 이 전차는 오미야(大宮)와 사카라기쵸(櫻木町)를 왕래하는 국철이다. 그래서 사쿠라기쵸 글자 그 자체는 친숙하지만, 이곳에 와본 것은 처음이다. 아니 사쿠라기쵸하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고 있다.

그것은 1951년 4월 24일의 사쿠라기쵸 사고이다.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게이힌토후쿠선 종점인 사쿠라기쵸역 50m 앞에서, 공사의 실수로부터 가선(架線)이 쳐져, 진입한 전차의 판타그래프부터 발화하였다. 그래서 선두차량은 전소하고, 둘째 번 차량이 반소하여 106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92명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다. 사쿠라기쵸역을 보고 있노라니 5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실은 그래서 사쿠라기쵸 역 구내를 기웃거린 것이다.

아침 8시, 우리들은 70층 스카이라운지 「시리우스」에서 바이킹식 아침식사를 하였다. 전망위 전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요코하마만에서 바라보는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 탄자와연봉 그리고 눈에 덮인 후지산

후지산이 잘 보이는 창쪽에 자리를 잡았다. 탄자와(丹澤)연봉 너머로 눈에 덮인 후지산이 선명하게 멀리 그리고 수려하게 선보이고 있다. 3일 동안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갔다 나올 줄 모르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과 고별을 하고, 이제 일본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2001년)